

[P3-11]

일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체중군별 체중조절 관심도에 관한 연구

김옥희^{1)*}, 김영옥²⁾, 장은재^{1,2)}, 배윤정¹⁾, 김미자¹⁾

동덕여자대학교 비만과학대학원 비만관리학과¹⁾, 동덕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²⁾

A Study on the Interest of the Body Weight Control According to Weight Status in Children of Elementary School

Ok-Hee Kim^{1)*}, Young-Ok Kim²⁾, Un-Jae Chang^{1,2)}, Yoon-Jang Bae²⁾, Mi-Ja Kim¹⁾

Department of Obesity Management, Graduate School of Obesity Science Dongduk Women's University, Seoul, 136-714, South Korea¹⁾,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, Dongduk Women's University, Seoul, 136-714, South Korea²⁾

최근 매스컴이나 사회적인 요구가 날씬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가장 체중에 대한 관심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잘못된 신체상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.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내 동대문구에 위치한 D초등학교 1개교를 임의 선정하여 5, 6학년 아동 368명의 재학생(남:186명 여:182명)을 연구대상으로 체중군별 즉 저체중군, 정상체중군, 비만군으로 나누어,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, 외모에 대한 관심,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, 체중조절관심 동기, 체중조절방법, 체중조절방법 선택시의 상담자를 조사하였다. 체중조절 관심도는 체중군별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, 저 체중군에서 관심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51.8%, 관심없다는 25.3%로 관심이 있는 학생이 많았으며, 정상체중군에서도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50.7%, 관심없다는 18.6%로 관심이 있는 편이었고, 비만군은 관심있다 64.3%, 관심없다 14.3%로 관심이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. 외모 관심도는 4가지 항목 중 '탤런트나 가수를 동경하는가'라는 항목에서 체중군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($p<0.01$), 저 체중군은 긍정적인 의견이 63.9%, 부정적인 의견이 10.8%를 차지하였으며, 정상체중군은 긍정적인 의견이 53.0%, 부정적인 의견은 13.5%로, 비만군은 긍정적인 의견이 47.2%, 부정적인 의견이 24.3%로 나타나 세 체중군 모두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를 본 결과 체중군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($p<0.01$), 저체중군 67.5%, 정상체중군 30.2%, 비만군 98.6%가 자신의 체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고, 저체중군 32.5%, 정상체중군 47.4%는 자신의 실제 체형보다 살찐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, 비만군이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에 비해 올바르게 자신의 체형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. 자신의 체중조절에 관한 관심 동기를 조사해본 결과 체중군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($p<0.01$), 저체중군 37.2%, 정상체중군 55.9%, 비만군 57.8%가 '스스로 표준체형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'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, 그중에서도 저체중군의 18.6%는 '매스 커먼 영향을 받아서'로 응답하여 이 그룹이 광고매체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. 체중조절을 위한 시도방법을 조사해본 결과 체중군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($p<0.01$), 세 체중군 모두 '운동을 한다'가 49.7%로 가장 많았으며, '식사의 양 조절' 항목에는 저체중군 16.9%, 정상체중군 13.5%, 비만군은 10.0%가 응답하였다. 체중조절방법 선택시 상담자를 조사해본 결과 체중군별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, 세 체중군 모두 부모님이 27.7%로 가장 많이 나타나, 부모님이 체중조절 상담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. 따라서 본 연구 결과로, 저체중아동들과 정상체중아동들은 대체로 체중조절에 관심이 있으며 체중감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, 비만아동들 역시 체중조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, 향후 부정확한 체형 인식과 다이어트 식품 등으로 무분별한 체중조절을 시도 할 수 있다고 예측되어진다.